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투자전략/시황 Analyst 한지영, RA 유지윤



미 증시, 7월 PPI 안도감, 샌디스크발 화재 등으로 강세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13일(목) 미국 증시는 시스코(-8.4%)의 마진 둔화, 후티 반군의 사우디 정유시설 공격 등 불안 요인이 상존했지만, 7월 PPI 컨센 하회, 원유 재고 증가에 따른 유가 약세, 샌디스크(+13.8%)의 중장기 긍정적인 전망 제시 효과 등에 힘입어 상승(다우 +0.1%, S&P500 +0.7%, 나스닥 +0.8%,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0.5%).

직전일 7월 CPI의 컨센 부합 소식에 이어, 7월 PPI도 헤드라인과 코어 모두 각각 4.7%(YoY vs 컨센 4.9%), 4.2%(YoY, 컨센 4.2%)로 둔화된 모습. 7월 미-이란 충돌 재개 후 발생한 유가 상승(+관세 여파)이 기업 원가 인상을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우려가 있었으나, 데이터상으로는 적어도 생산단계의 가격 압력이 진정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준 것으로 판단.

이처럼 시장은 “7월 고용 둔화”, “7월 CPI 컨센 부합”, “PPI 컨센 하회”, “유가 상방 압력 제한”이라는 재료를 확보한 상황. 이는 연준의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낮추는 근거를 쌓아가고 있는 것을 의미하기에, 최소 8월 말(27~29일)예정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매크로 불확실성이 증시에 큰 충격을 가할 여지는 적을 것으로 예상.

또 샌디스크가 인베스터데이에서 1) 28~30년 연평균 10%대 중후반 매출성장, 2) 장기공급계약 확대를 통한 사이클의 변동성 축소, 3) 매출총이익률 80% 목표, 4) 잉여현금흐름 100% 주주환원 등을 제시한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로 인해 마이크론(+4.2%), 램리서치(+3.3%) 등 여타 반도체주들도 동반 강세를 보이는 등 반도체주의 부정적인 내러티브가 해소되고 있는 만큼, 증시 전반에 걸친 위험선호심리의 추가 훼손 가능성은 낮게 가져갈 필요.

전일 국내 증시는 미국 7월 CPI 안도감 및 연준의 금리인상 우려 완화, AI 인프라 업체들의 호실적에 따른 반도체 주 회복 모멘텀 부각 등으로 대형주 중심의 강세로 마감(코스피 +3.6%, 코스닥 ++0.3%).

금일에는 최근 연속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및 연휴 돌입 전 관망심리에도, 미국 7월 PPI 안도감, 샌디스크발 화재 등에 힘입어 강세 흐름을 보일 전망.

이번주 AI 인프라 수요 호조 재확인, 연준의 9월 금리인상 우려 완화 속 외국인 순매수 전환 등이 코스피의 강세를 이끌면서, 지난주 뒤쳐졌던 코스닥의 성과 격차를 축소시킨 모습(지난주: 코스피 -5.1% vs 코스닥 +11.0%, 이번주: 코스피 +8.9% vs 코스닥 +7.8%). 뿐만 아니라 소수업종 쓸림현상이 아닌 업종간 선순환매 장세의 형태로 반등하고 있다는 점을 미루어 보아, 수급 체질이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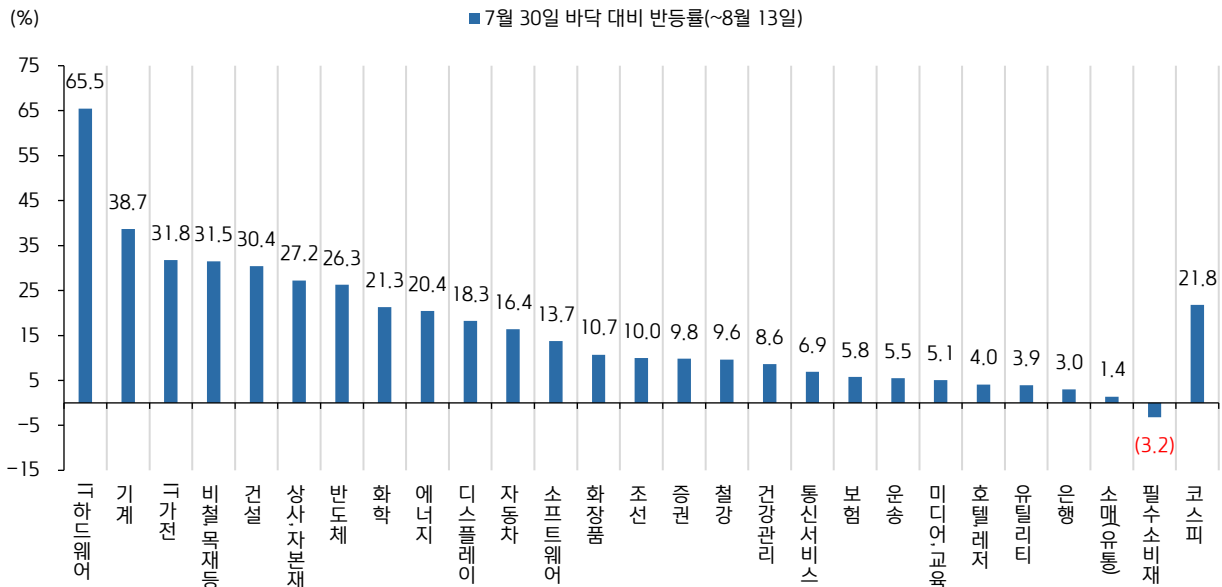
물론 8월 반등 과정에서 레버리지 베팅 증가, 예약금 감소 등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잠재적인 수급 여건의 취약성을 자극하는 요인.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은 신용잔고는 각각 23.7조원(7월말 대비 +1.3조원), 6.3조원(+0.17조원)을 기록했으며, 예약금은 100조원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99.98조원, 7월 말 대비 -4.2조원).

그러나 여전히 이들 수급 지표 모두 절대적인 관점에서는 큰 우려를 할 단계는 아니라고 판단. 코스피와 코스닥의 신용잔고가 늘기는 했으나, 이전 고점 대비 각각 18% 감소, 43% 감소한 상태인 만큼, 레버리지 과열로 평가하기엔 한계가 있음.

100조원대를 하회하고 있는 예탁금 감소 문제 역시 개인의 실탄 감소로 해석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 여전히 연초 수준(87조원)을 웃돌고 있는 데다가, 최근 예탁금 감소는 개인의 주식 매수 자금 집행에서 비롯된 성격이 크기 때문. 개인의 신규 실탄 보급이 제한되고 있는 국면이지만, 최근 순매수로 전환 중인 외국인 수급이 개인 신규 실탄 공백을 상쇄할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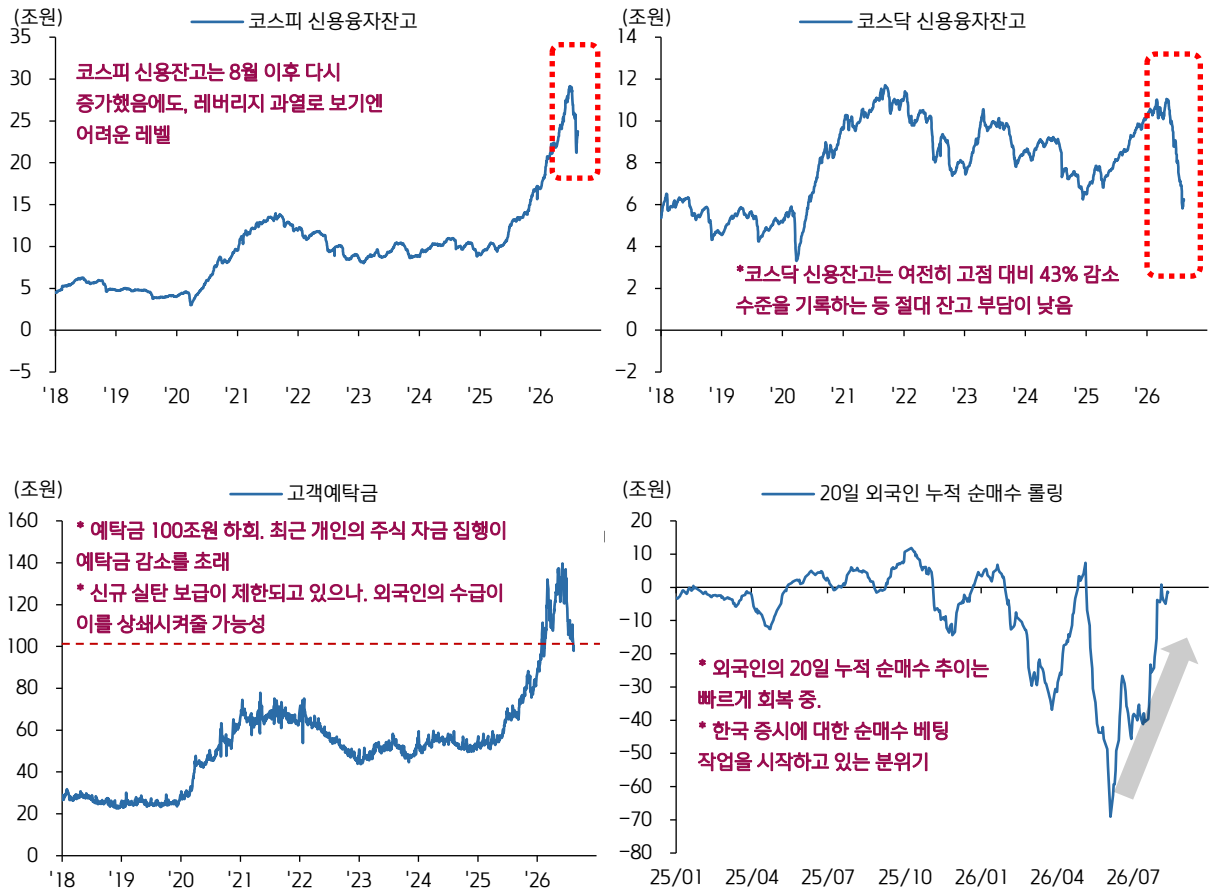
더욱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AUM이 주 초반 5조원대에서 7조원대로 늘어났음에도, 이들 거래대금이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3일 기준 2.6%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시장 지배력이 약화된 상태. 5~6월처럼 소수 업종의 극단적인 쏠림현상이 재현될 확률이 낮아졌음을 시사. 따라서, 금일 혹은 차주 중에 차익실현 압력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겠지만, 증시 체력과 수급의 질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 시, 중기적인 증시 경로는 저점을 계속 높여가는 회복경로로 설정하는 것이 적절.

7월 30일 코스피 저점 이후 현재까지의 업종별 반등 강도: 5~6월 중 급락 이후 반등장에서는 반도체 포함 2~3개 극소수의 업종만 반등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다수의 업종에 걸쳐 반등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증시의 회복 탄력성이 개선되고 있음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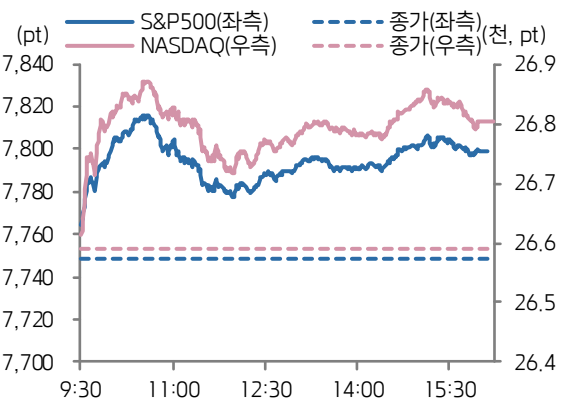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국내 주식시장의 주요 수급 지표 분석: 수급의 질도 이전보다 좋아지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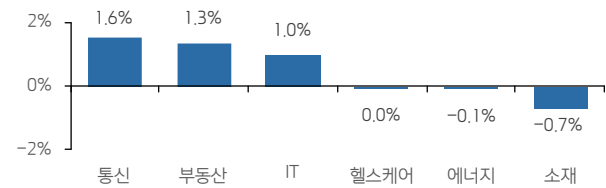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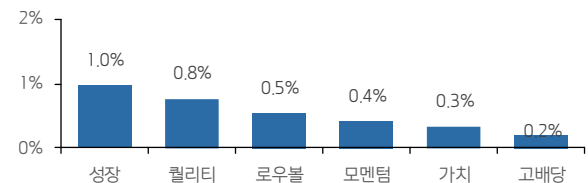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을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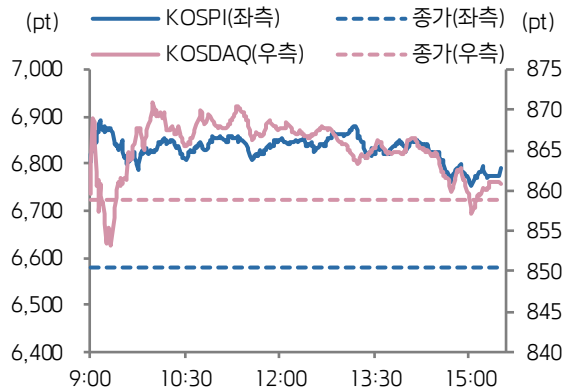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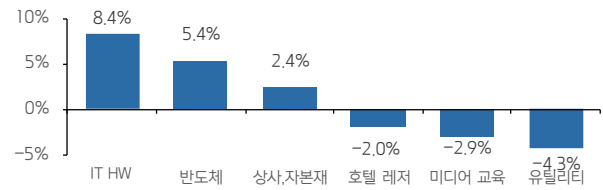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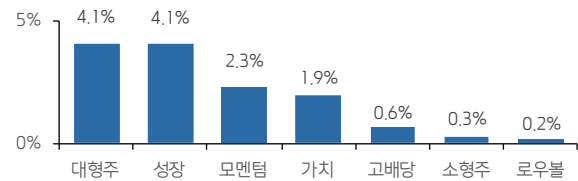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305.26	+1%	+12.59%	GM	86.39	-0.43%	+6.72%
마이크로소프트	496.88	+0.9%	+3.2%	일라이릴리	1,209.00	-0.92%	+12.88%
알파벳	346.36	+0.82%	+10.8%	월마트	115.72	-0.25%	+4.28%
메타	594.97	+2.78%	-9.7%	JP모건	363.11	-0.57%	+14.29%
아마존	265.13	-0.8%	+14.86%	엑손모빌	158.61	-0.71%	+33.58%
테슬라	339.96	+3.8%	-24.41%	세브론	197.70	+0.56%	+32.18%
엔비디아	225.30	+0.54%	+20.95%	제너럴일렉트릭	115.72	-0.2%	+4.3%
브로드컴	417.82	+0.43%	+21.17%	캐터필러	854.60	-0.12%	+50.09%
AMD	483.01	+0.02%	+125.54%	보잉	230.33	-0.38%	+6.08%
마이크론	949.83	+4.23%	+232.98%	넥스트에라	86.01	+0.3%	+8.7%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6,813.34	+3.56%	+61.68%	USD/KRW	1,421.25	+0.3%	-1.27%
코스피200	1,071.24	+4.06%	+76.78%	달러 지수	99.96	-0.05%	+1.67%
코스닥	861.37	+0.29%	-6.93%	EUR/USD	1.15	+0.02%	-1.86%
코스닥150	1,492.18	+0.66%	-3.56%	USD/CNH	6.74	-0.01%	-3.31%
S&P500	7,798.99	+0.65%	+13.93%	USD/JPY	159.50	+0.05%	+1.78%
NASDAQ	26,803.03	+0.81%	+15.32%	채권시장			
다우	53,839.99	+0.13%	+12.02%	지수	가격	DTD(bp)	YTD(bp)
VIX	14.63	+0.55%	-2.14%	국고채 3년	3.777	-0.5bp	+82.6bp
러셀2000	3,052.85	+0.24%	+23%	국고채 10년	4.300	+1.5bp	+91.5bp
필라. 반도체	12,456.00	+0.46%	+75.85%	미국 국채 2년	4.142	-5.9bp	+66.9bp
다우 운송	21,928.05	+1.5%	+26.33%	미국 국채 10년	4.643	-5bp	+47.6bp
상해종합	3,926.97	-0.5%	-1.06%	미국 국채 30년	5.213	-4.5bp	+36.9bp
항셍 H	8,426.49	-0.23%	-5.47%	독일 국채 10년	3.131	-2.9bp	+27.6bp
인도 SENSEX	78,079.96	+0.15%	-8.38%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지수	가격	DTD(%)	YTD(%)
Eurostoxx50	6,545.47	+0.18%	+13.02%	WTI	81.25	-2.43%	+42.52%
MSCI 전세계 지수	1,160.80	+0.54%	+14.41%	브렌트유	87.07	-2.15%	+43.09%
MSCI DM 지수	5,034.04	+0.51%	+13.63%	금	4,420.40	-1.05%	-1.71%
MSCI EM 지수	1,695.37	+0.8%	+20.72%	은	64.99	-1.08%	-7.95%
MSCI 한국 ETF	178.62	+1.56%	+83.73%	구리	660.80	-0.11%	+16.3%
디지털화폐				BDI	2,939.00	-3.51%	+56.58%
비트코인	63,358.30	-0.3%	-27.71%	옥수수	472.00	-1.82%	+2.5%
이더리움	1,884.68	-0.01%	-36.71%	밀	668.25	-0.22%	+18.33%
				대두	1,182.25	-0.08%	+11.06%
				커피	312.80	-2.23%	-0.5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8월 13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